

보도시점 (인터넷, 지면) 2026. 8. 23.(일) **즉시보도**

해남군 소규모 지진 반복 발생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지진 위기경보 수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규모는 아니나, 연속 지진 반복에 따른 선제적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8월 23일) 06시 4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11시부로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해남군에서 최대진도 IV가 관측되었으며, 유감신고는 총 2건(06시 53분 기준, 해남1·신안1) 접수되었고, 피해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8월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회를 포함해 총 71회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고 있다.

■ (최대계기진도 현황)

- IV: 전남광주(해남)
- III: 전남광주(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 II: 전남광주(강진, 광산, 나주, 완도, 장흥, 함평)

※ 06:47분 기상청에서 계기진도 II이상 시·군·구에 재난문자(안전안내) 발송

■ (진도등급별 현상)

- IV: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
- III: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 II: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낀다.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린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일 10시 30분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기상청, 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지진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규모는 아니나 동일지역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동일 지역에서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정확하게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 ▶ (책상 밑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 ▶ (보호하고!)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 (버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 ▶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한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성은 (044-205-5190)
		담당자	서기관	박성규 (044-205-5194)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지진 발생 시

장소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계단·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꽂아 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산에 있는 경우 **산사태**에 주의,
해안에 **지진해일** 특보 시
높은 곳으로 이동

지진해일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기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멀리 높은 곳으로 대피**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
※ 건물 3층 이상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



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